

Kstat Report

2020년 9월 10일

‘공정’에 대한 국민 의식 심층 분석

한국사회 공정성 평가

- 국민들, 우리 사회 ‘전반적 공정성’에 부정적 평가
- ‘불공정하다’는 평가, 60대와 보수층에서 가장 뚜렷
-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능력에 비해 ‘낮은 대우’ 받는다고 생각
- 자신이 ‘낮은 대우’ 받는다는 생각, 보수층과 블루칼라 강해
- 부문별 공정성, ‘공기업 취업’ 가장 낮아
- 공기업 취업 공정성, 보수층이 가장 비판적
- 공정성 해치는 요인,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인맥’
- 공정성 저해 요인 영향력, 계층별 인식 차이 커

‘공정’에 대한 국민생각 종합

-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 일반적 ‘공정’ 개념과 달라
- 주관적 이념성향별 응답, ‘보수층’은 다소 혼란된 모습
- 성/연령별, 60대 남녀 제외하고 모두 국민전체 응답과 유사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 국민들, ‘구조적 불평등’ 관련 주장 동의도 높아
- 성/연령별 편차, 이념성향별 편차에 비해 편차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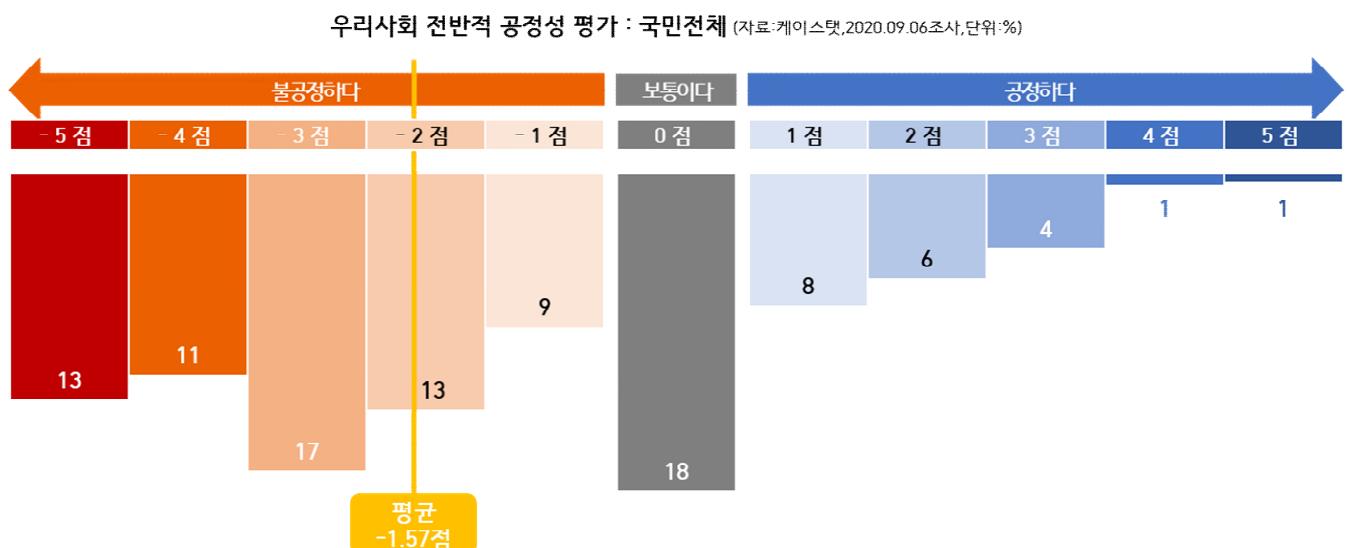
• • •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한국사회 공정성 평가

▣ 국민들, 우리 사회 '전반적 공정성'에 부정적 평가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이다’ 0점을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낮은 점수를 매겨주시고,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주세요.”라는 질문 결과 국민 다수는 ‘보통’ 이하라고 응답함
- ‘보통이다’는 응답이 18%로 가장 높은 가운데 ‘-3점’(17%), ‘-2점’(13%), ‘-5점’(13%), ‘-4점’(11%)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점수를 매겼음
- ‘불공정하다’고 점수를 매긴 국민은 모두 63%이고, ‘공정하다’는 모두 19%의 국민이 점수를 매김
- 국민전체 평균 점수로는 -1.57점에 불과해,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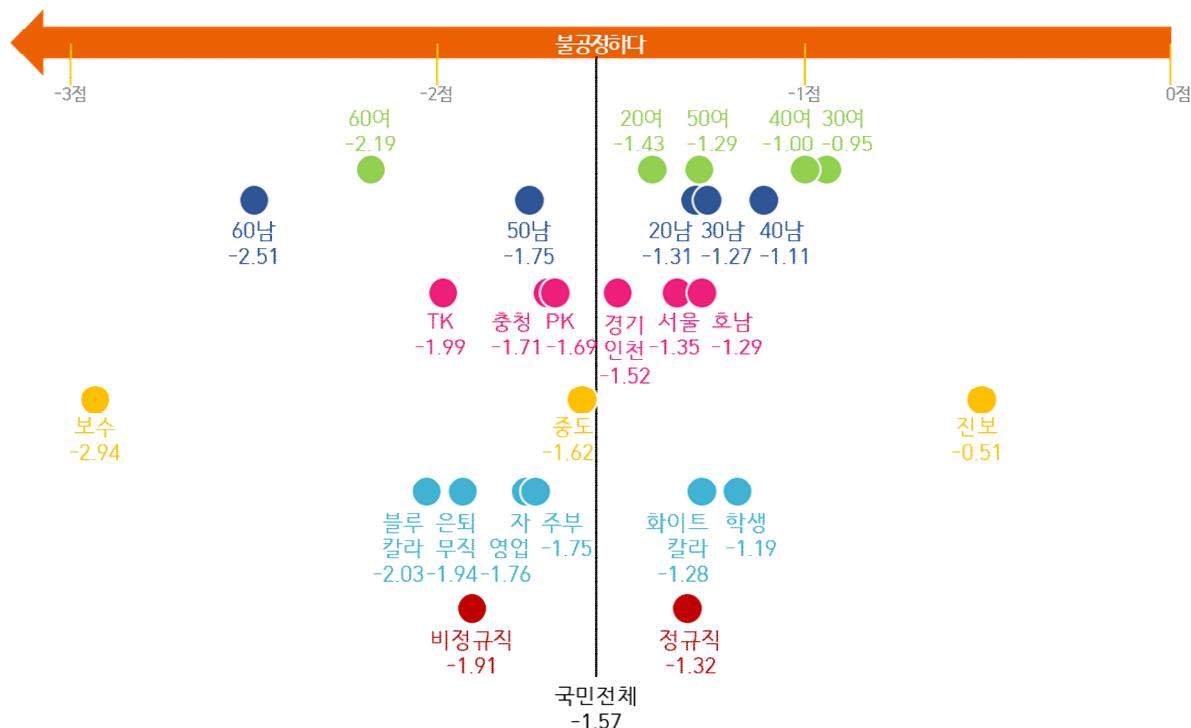
Kstat Point

-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 중 하나는 ‘공정’으로, ‘공정’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로 평가받고 있음
 - ‘공정’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됨. 정치·사회적으로는 정책 결정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 사사로운 이익, 즉 특권이 개입하지 않고 평가와 대우, 이익 배분을 공평히 하는 것을 말함
- ‘공정’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불공정을 줄이거나 해소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임
 - 이번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우리 사회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불공정하다'는 평가, 60대와 보수층에서 가장 뚜렷

-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보통'(0점)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점수(불공정하다)를 기록함
- ▶ 특히 '불공정하다'는 점수가 높은 계층은 △60대 여성, 60대 남성 △보수층 등임
- ▶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수가 낮은 계층은 △3040 여성, 40대 남성 △진보층 등임
- ▶ 계층별로 평가 점수가 가장 대비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60대 여성 vs 30대 여성
 - 60대 남성 vs 40대 남성
 - TK vs 호남
 - 보수 vs 진보
 - 블루칼라 vs 학생
 - 비정규직 vs 정규직

우리사회 전반적 공정성 평가 : 계층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언론 등에서는 '공정'에 대해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불공정하다'는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은 연령대는 60대 남녀와 50대 남성이고, 이념성향별 격차가 매우 큼
- ☑ 20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 층면이 있지만, 작년의 이른 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부분 정치적 시각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임
 - 즉,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층, 3040세대, 호남, 화이트칼라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공정이 덜하다고 생각하고
 -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층, 60대, TK 지역은 불공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능력에 비해 '낮은 대우' 받는다고 생각

- ▶ 우리 국민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합당한 평가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 "선생님은 평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낮은 평가,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 "‘합당한 평가 · 합당한 대우’ 0점을 기준으로 낮은 평가 ·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낮은 점수를 매겨주시고, 높은 평가 ·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주세요.”라는 세부 질문에 국민전체 평균 점수는 -0.95점으로 나타남
- ▶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평가, 합당한 대우'보다 '낮은 평가,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국민전체 평균 점수는 -0.91점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와 유사함

자신의 능력·노력 평가와 대우에 대한 인식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다른 사람, 그들 능력·노력 평가와 대우에 대한 인식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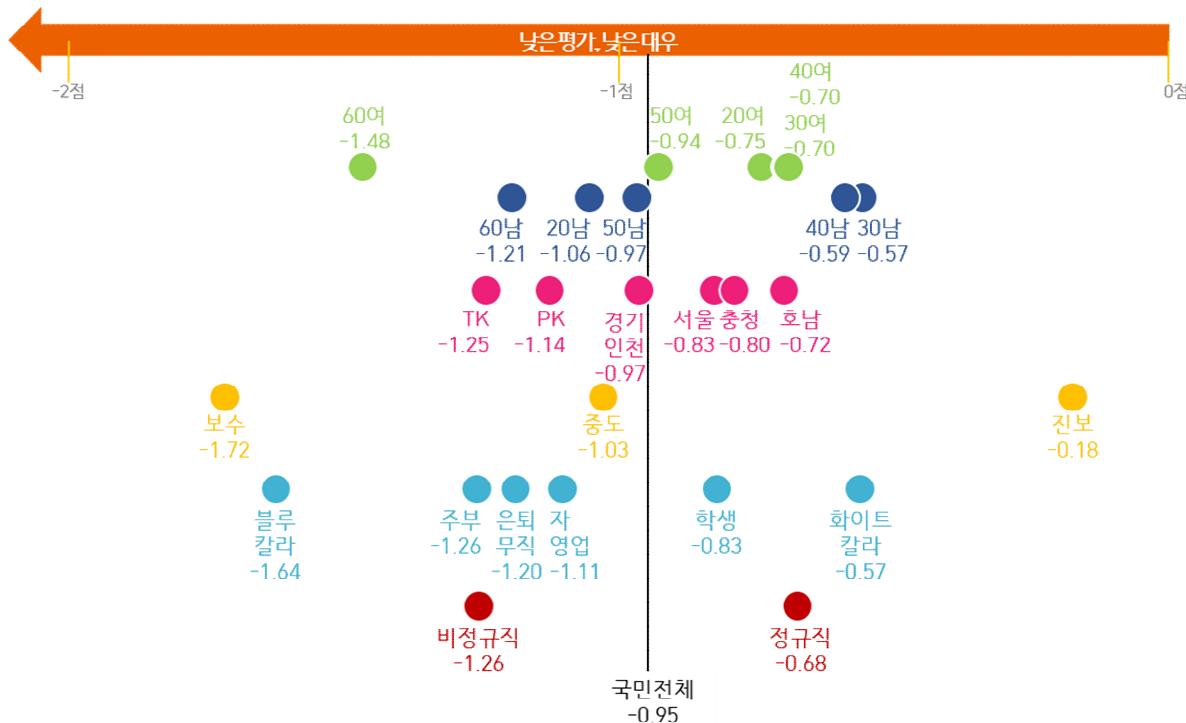
Kstat Point

- 자신의 능력과 기울인 노력에 대해 합당한 평가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사회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지점임
- 특히 우리 국민들은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합당한 평가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자신에 대한 점수(-0.95점)와 타인에 대한 점수(-0.91점)가 비슷한데, 이는 자신만이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불공정성'이더라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면서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게 됨
 - : 이른 바 '갑질 논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 가능할 것임

▣ 자신이 '낮은 대우' 받는다는 생각, 보수층과 블루칼라 강해

-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 걸쳐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평가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낮은 평가와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함
- ▶ 특히 '낮은 평가, 낮은 대우'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은 계층은 △60대 여성 △보수층 △블루칼라 종사자 등임
- ▶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낮은 대우' 점수가 낮은 계층은 △3040 남성 △진보층 △화이트칼라 종사자 등임
- ▶ 계층별로 평가 점수가 가장 대비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60대 여성 vs 3040 여성
 - 60대 남성 vs 3040 남성
 - TK vs 호남
 - 보수 vs 진보
 - 블루칼라 vs 화이트칼라
 - 비정규직 vs 정규직

자신의 능력.노력 평가와 대우에 대한 인식 : 계층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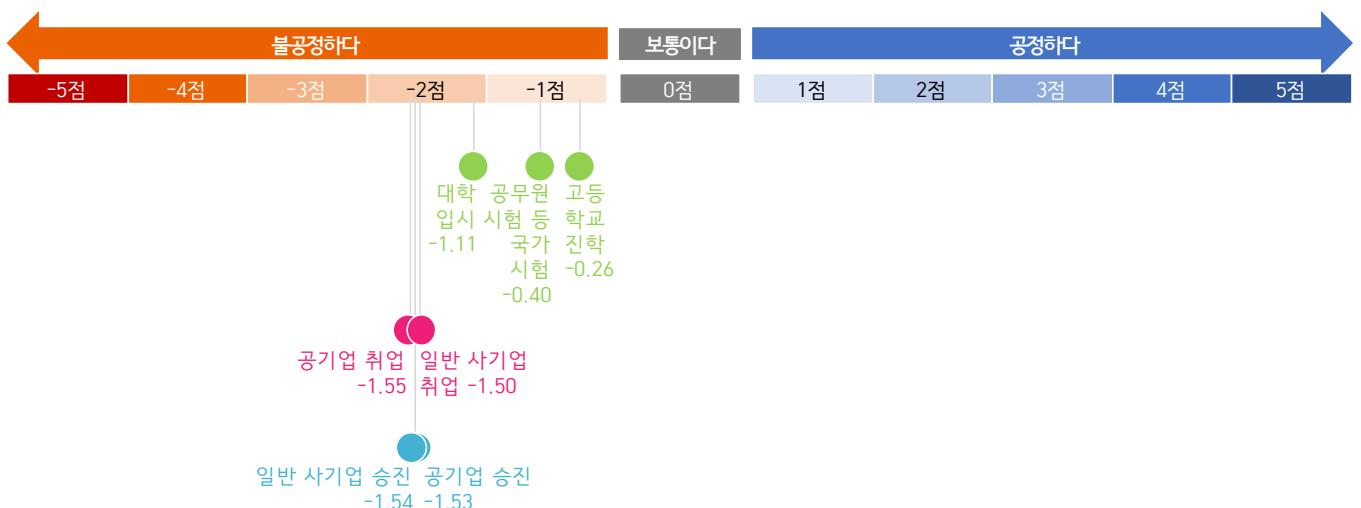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신의 능력과 기울인 노력에 대한 평가 및 대우에 대한 생각 역시 정치적 시각과 상당히 유사함
 - : 한 사회의 공정성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민적 시각은 우려되는 지점임
- ▣ 한편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은 정치적 시각이 아닌 이들 계층 간의 실질적 '대우'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 부문별 공정성, '공기업 취업' 가장 낮아

- ▶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 평가한 결과 '고등학교 진학'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공기업 취업'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다음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이다' 0점을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낮은 점수를 매겨주시고,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매겨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 모든 부문에서 '보통이다'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점수를 얻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국가주관 시험들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음
 - '고등학교 진학' -0.26점,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 -0.40점, '대학입시' -1.11점 순으로 조사됨
- ▶ 취업과 관련해서는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 모두 국가주관 시험보다 부정적 평가를 받음
 - '일반 사기업 취업'(-1.50점)에 비해 공정해야 할 '공기업 취업'(-1.55점)이 근소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이 주목됨
- ▶ 승진의 경우 공기업, 사기업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부정적 평가를 받음
 - '일반 사기업 승진'은 -1.54점이고, '공기업 승진'은 -1.53점으로 유사함

부문별 공정성 평가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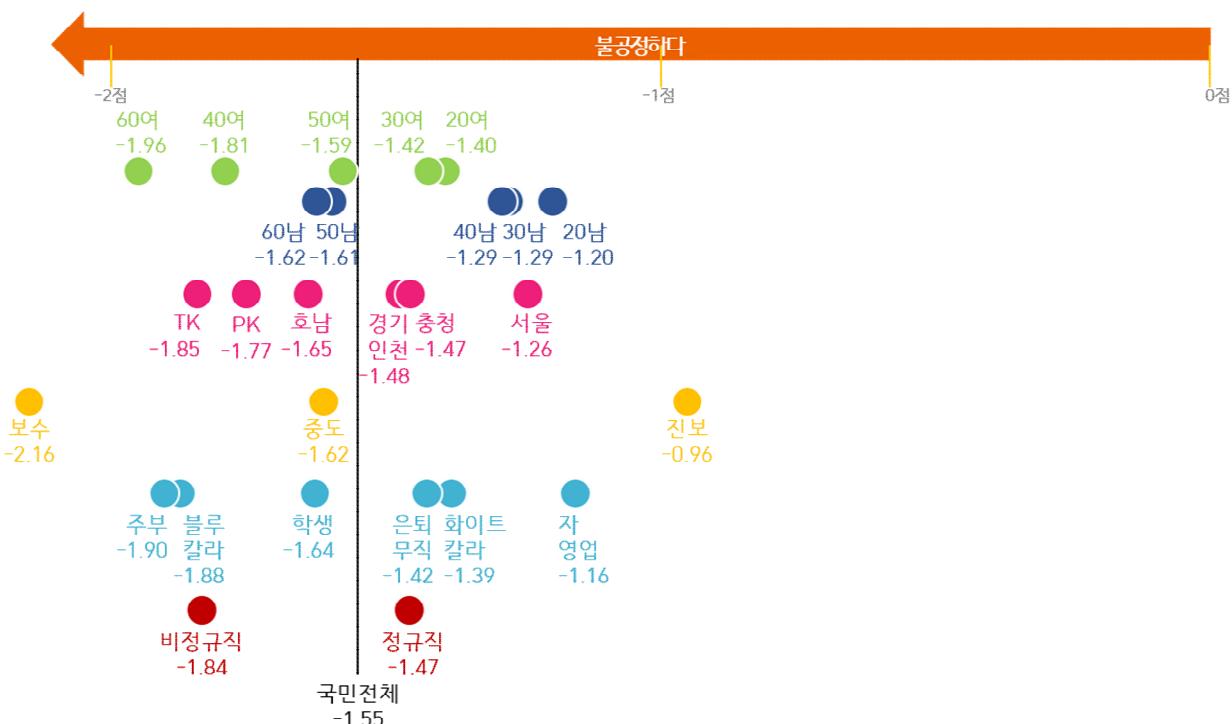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평생 동안 거치는 대표적 평가 항목인 진학과 취업, 승진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들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일반 사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는 지적임
 -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입시도 -1.11점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음
- ☑ 우리 사회 공정성 회복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취업과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
 - ： 특히 정권교체와 무관하고 일관된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공기업 취업 공정성, 보수층이 가장 비판적

- ▶ 부문별 공정성 중 '공기업 취업' 공정성 평가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특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강한 계층은 △60대 여성 △TK △보수층 △주부, 블루칼라 종사자 등임
- ▶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약한 계층은 △20대 남성 △서울 △진보층 △자영업자 등임
- ▶ 계층별로 평가 점수가 가장 대비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음
 - 60대 여성 vs 20대 여성
 - 60대 남성 vs 20대 남성
 - TK vs 서울
 - 보수 vs 진보
 - 주부 vs 자영업
 - 비정규직 vs 정규직

공기업 취업 공정성 평가 : 계층별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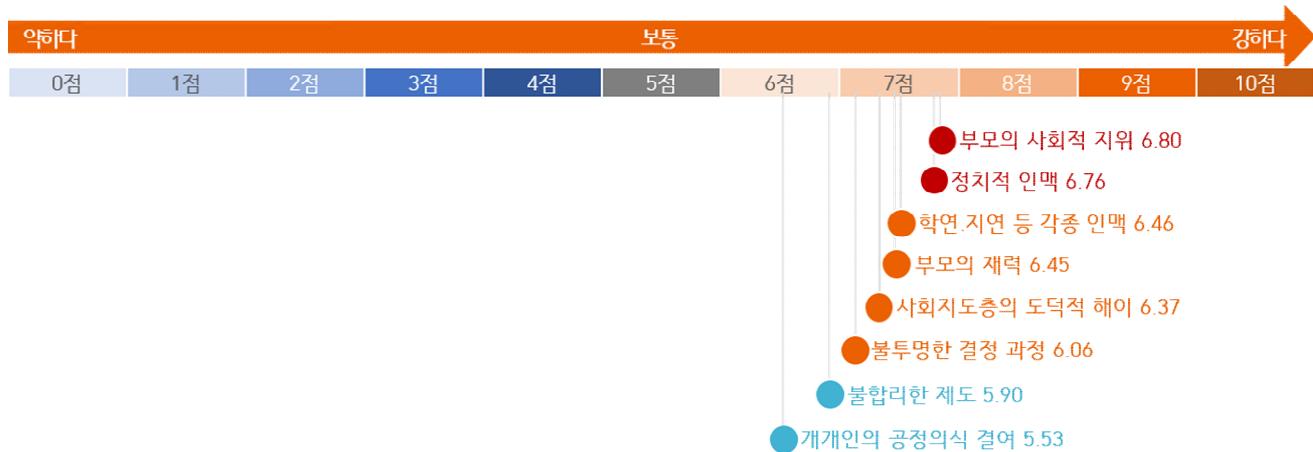
Kstat Point

- ☒ 공기업 취업의 당사자인 20대 남성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매긴 점이 특이함
 - : 이에 비해 6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매기고 있음
- ☒ 이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시각으로 대체된 결과로 분석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에 걸쳐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공정'을 가치로 내걸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공기업 채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 실제로 역대 정부 대부분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한데 비해 현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임

✳ 공정성 해치는 요인,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인맥'

- ▶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인맥'이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다음은 불공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요인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면 0점,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면 1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주세요."라는 응답 결과임
- ▶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6.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치적 인맥'(6.76점), '학연·지연 등 각종 인맥'(6.46점), '부모의 재력'(6.45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6.3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불투명한 결정 과정'(6.06점)이 꼽혔고 제도(5.90점)와 개인의 공정의식(5.53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김

요인별 공정성 해치는 영향력 평가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Kstat Point

- ☑ 국민들은 지금의 제도 또는 개개인의 공정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정치적 인맥'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공정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이른 바 '빡'은 현 시점에서 '정치적 인맥'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대표되고 있음
- ☑ 주목되는 점은 '부모의 재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점임
 - : 우리 사회의 '금수저'는 돈보다 권력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치권력의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함
- ☑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치권력의 의지에 따라 재계가 움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과로 보임
- ☑ 또한 작년의 '조국 사태' 속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조국 사태'는 법정 판결과 무관하게 정치적 인맥과 이에 기반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출함
 - : 더불어 '조국 사태'는 정치·사회적으로 국론분열과 대립의 소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정치적 시각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음

▣ 공정성 저해 요인 영향력, 계층별 인식 차이 커

- ▶ 공정성 저해 요인을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 비해 진보층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보수층은 평균 점수가 7.00점을 넘는 경우가 없고,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평균 점수가 낮게 평가함
 - 이에 비해 진보층은 모든 요인에서 국민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인맥에 대한 영향력 평점이 7.00점을 넘음

주관적 이념성향별 공정성 저해 요인 영향력 평가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인맥	학연.지연 등 각종 인맥	부모의 재력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보수층	6.46	6.39	5.99	5.99	6.01
중도층	6.73	6.72	6.44	6.40	6.29
진보층	7.23	7.11	6.82	6.88	6.84

- ▶ 성/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60세대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음
-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낮고, 2030세대의 부정적 평가가 높음

남자 연령별 공정성 저해 요인 영향력 평가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인맥	학연.지연 등 각종 인맥	부모의 재력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남자 18~20대	6.49	6.56	6.52	6.37	5.81
남자 30대	6.73	6.66	6.08	6.57	6.35
남자 40대	7.07	6.89	6.64	6.66	6.76
남자 50대	7.06	6.86	6.58	6.59	6.73
남자 60대이상	7.30	7.41	6.78	6.84	7.14

여자 연령별 공정성 저해 요인 영향력 평가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점)

	부모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인맥	학연.지연 등 각종 인맥	부모의 재력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여자 18~20대	7.47	7.51	7.43	7.36	6.81
여자 30대	7.12	7.03	6.91	6.75	6.49
여자 40대	6.23	6.07	5.96	5.98	5.87
여자 50대	6.29	6.33	5.99	5.78	5.93
여자 60대이상	6.39	6.39	5.97	5.92	5.88

Kstat Point

- ☒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해 보수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요인별 평가에서는 국민전체 평균보다 낮게 응답함
- ☒ 이에 비해 진보층은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평가하면서도 요인별 평가에서는 매우 부정적임
- ☒ 이러한 이유는 사회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시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보수층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 속에 사회 공정성을 과대해석하고, 진보층은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사회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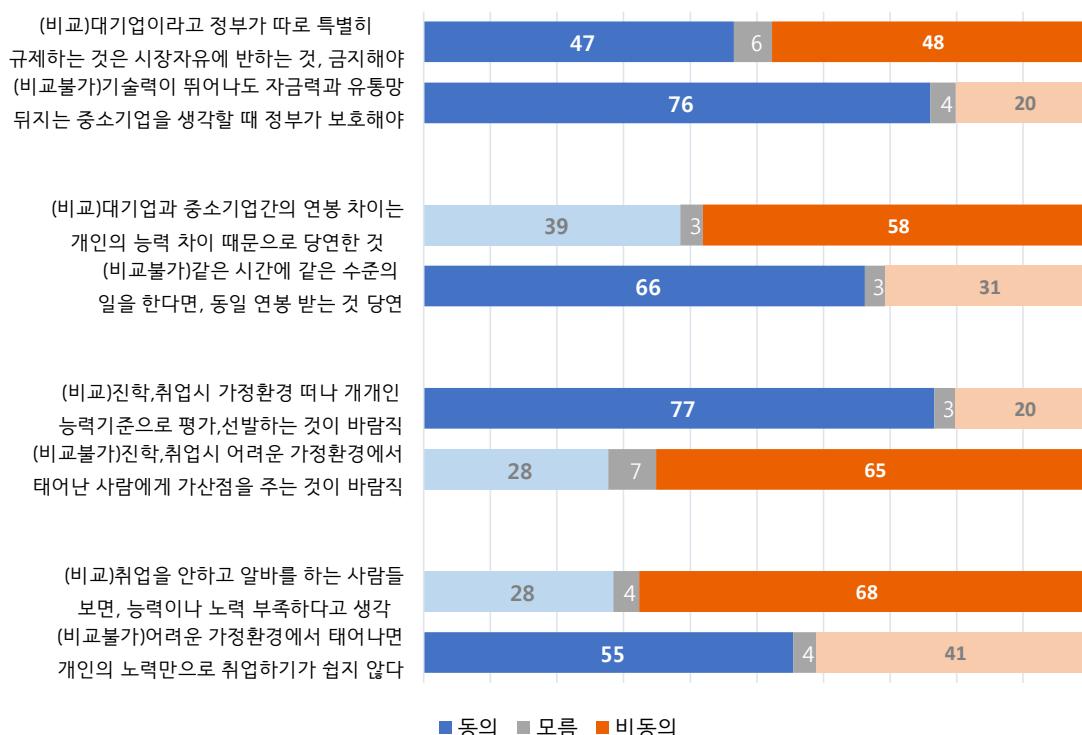
▣ '공정'에 대한 국민생각 종합

*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 일반적 '공정' 개념과 달라

- ▶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정'은 기본적으로 비교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나의 노력 수준'과 '남의 노력 수준'을 비교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 수립되는 정의의 관념을 비교적 정의라고 부름
- ▶ 한편으로 '공정'은 비교 직전 단계에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능력 차이를 고려해 출발선을 일치시키는 '비교 불가능한 원칙'으로 확장되어 말해지기도 함
 - 이러한 출발선 일치는 비교 불가능한 정의의 영역으로 부르며, 이에 따라 '기회균등' 원리가 도출됨
- ▶ '공정'에 대해 이러한 두 측면으로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일반적인 비교의 원칙보다 비교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괄한 '공정(기회균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 비교의 원칙에 따른 질문에 있어, 진학·취업시 능력기준 평가·선발에 대해서는 77%가 동의하지만, 대기업 규제 반대에 대해서는 47%가 동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봉차이와 취업 안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낮음
- ▶ 비교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괄한 '공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고(76%), 동일노동 동일연봉에 동의하며(66%),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개인노력으로 취업하기 어렵다(55%)고 생각함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는 동의 정도가 낮아(28%),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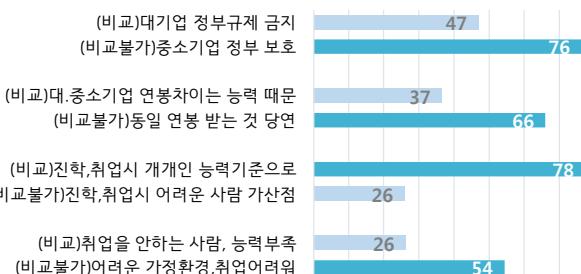
▣ 주관적 이념성향별 응답, '보수층'은 다소 혼란된 모습

- ▶ '공정'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주장 동의도를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모두가 비교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공정'보다 비교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함한 '공정(기회균등)'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
- 한 가지 예외는 앞서 국민전체 여론과 마찬가지로 '진학·취업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낮음
- 이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적인 비교 원칙에 따른 '공정' 개념인 '진학·취업시 가정환경을 떠나 개인의 능력기준으로 평가,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높은 수준으로 동의함
- ▶ 다만, 보수층의 경우 비교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함한 '공정(기회균등)'에 동의하면서도 비교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공정' 개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등 다소 혼란된 모습을 보임
- 보수층은 '중소기업 정부 보호'에 동의하는 동시에 '대기업 정부규제 금지'에 동의함
- 또한 '동일노동 동일연봉'에 동의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봉차이'에 대해서도 동의함
- ▶ 이에 비해 중도층과 진보층은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보임
- '대기업 정부규제 금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중소기업 정부 보호'보다 낮음
-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봉차이' 동의 정도 또한 '동일노동 동일연봉'에 비해 낮음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보수층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중도층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진보층



(자료:케이스탯, 2020.09.06.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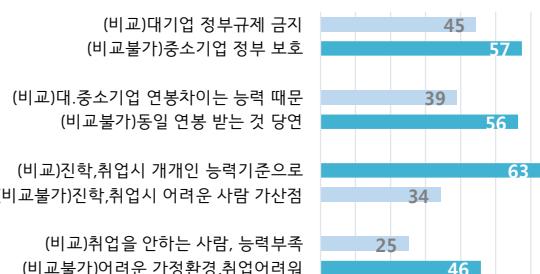
Kstat Point

-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비교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함한 '공정(기회균등)'에 가까움
- 그러나 '진학·취업'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원칙에 따른 '공정'에 동의하고, 이는 이념성향별로도 동일함
 -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산점을 주는 것에는 반대함
 - : 통상의 진보적 가치는 기회균등 입장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층은 다른 게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서 진학·취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임
 - : 최근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벌어진 '공정' 논란은 이러한 '각자도생'을 상징하는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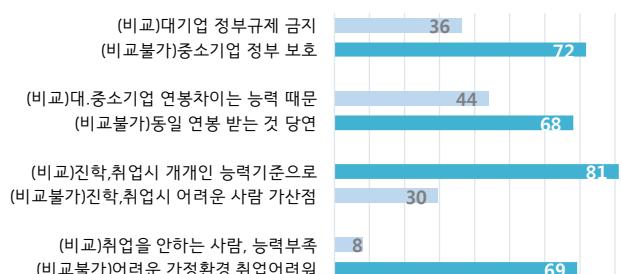
▣ 성/연령별, 60대 남녀 제외하고 모두 국민전체 응답과 유사

- ▶ 성/연령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국민전체 의견과 유사하게 비교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함한 '공정(기회균등)'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
 - '진학·취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교원칙에 따른 '공정'에 동의하는 것 역시 동일함
- ▶ '진학·취업시 어려운 사람 가산점'에 동의하는 정도만 살펴보면 30대 남성이 가장 동의도가 높고(37%), 50대 여성이 가장 동의도가 낮음(19%)
- 진학·취업 주 당사자인 20대의 동의도는 남성 34%, 여성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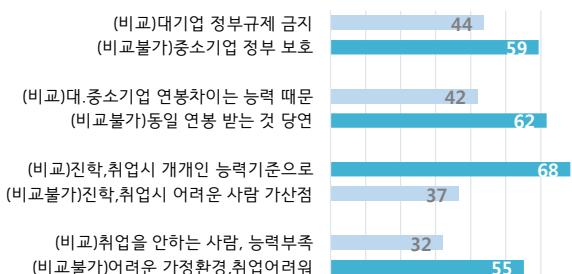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20대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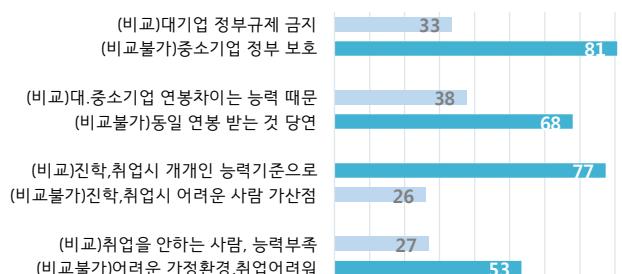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20대여자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30대남자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30대여자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40대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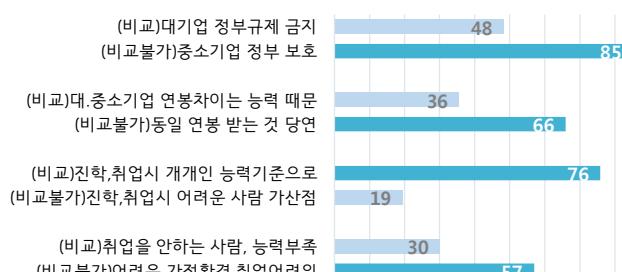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40대여자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50대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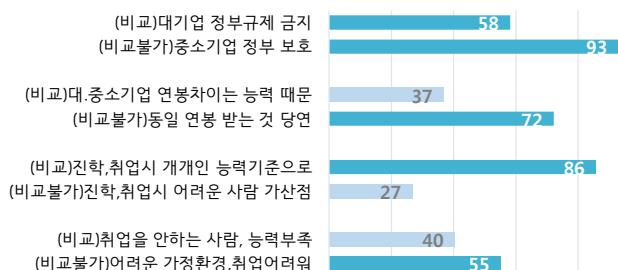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50대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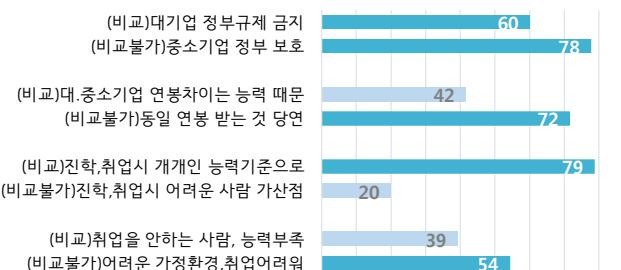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 단위:%)

- ▶ 60대 남녀의 경우 보수층과 유사하게 '중소기업 정부 보호'에 동의하는 동시에 '대기업 정부규제 금지'에 동의하고 있어 개념상의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임
- 다만, '동일노동 동일연봉'에 동의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봉차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보수층과 달리 '동일노동 동일연봉'에만 동의하고 있음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60대남자



공정에 대한 두 측면 주장 동의도 : 60대여자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

Kstat Point

- ☑ '공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기회균등의 '공정' 개념을 선호하지만, 진학·취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하면서 능력비교에 따른 '공정'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공정'이라는 말 또는 주장을 접할 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모순된 태도, 또는 인식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임
 - :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시함
 -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취업 기회 박탈'이라고 을분을 토로하기도 함
 - :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입시·취업시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음
- ☑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정희원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개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함
 - : 그는 "모두가 공정한, 즉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따라서 내가 부당하게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는(다시 말해, 똑같이 보상받거나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신념은 '각자도생'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정당화한다"고 말함
 - : 그러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라면서 "능력주의는 언제나 계층 이동의 신화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과 절차 자체가 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잘 얘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입시 제도와 비교할 때,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표준화된 절차가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안겨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실 시험 성적과 가구 소득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 부잣집 자녀들이 수능이나 SAT에서 일관되게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고 지적함
 - : 결론적으로 그는 "능력주의 모델과는 다른, 다시 말해 공정뿐만 아니라 평등과 필요의 원리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정책은 수많은 다른 원리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공정, 평등, 필요의 원리를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고 주장함
- ☑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는 진학·취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 : '조국 사태'는 진보 진영이라고 진학·취업에 대해 가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는 재산증식에 대해 진보적인 사람도 개인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현실을 보여줌
 -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능력주의' 사회로 완벽히 탈바꿈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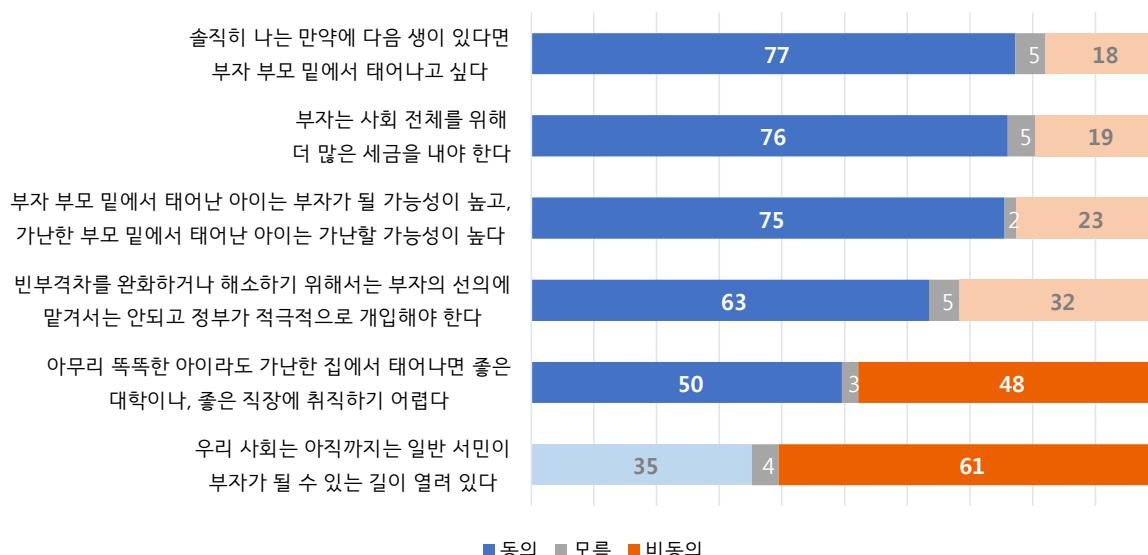
▣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 국민들, '구조적 불평등' 관련 주장 동의도 높아

- ▶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 다만,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경우 '동의' 50% vs '비동의' 48%로 팽팽함
-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일반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주장은 '비동의'가 구조적 불평등에 동의하는 여론임

'구조적 불평등' 관련 주장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



■ 동의 ■ 모름 ■ 비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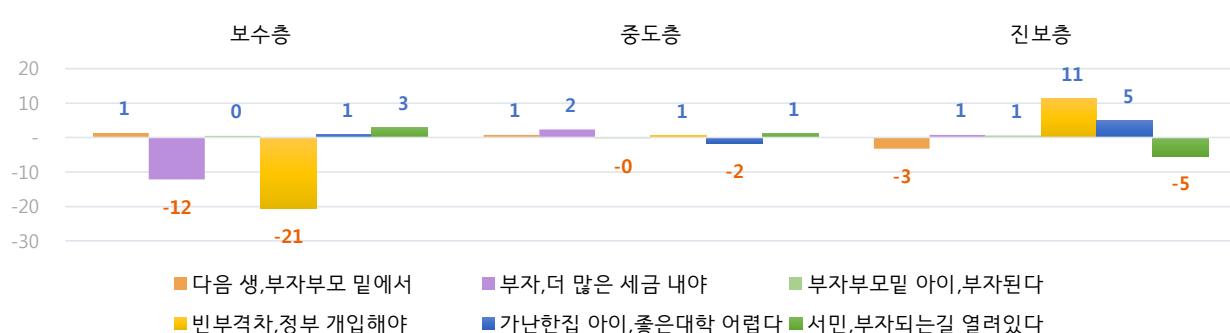
- ▶ 이념성향별로 국민전체 의견과의 편차를 살펴보면 보수층은 전반적으로 동의정도가 낮음

- 특히 '빈부격차, 정부 개입해야'에 대한 편차가 -21%p로 반대의견이 높음

- ▶ 이에 비해 진보층은 전반적으로 동의정도가 높음

- 보수층과 달리 '빈부격차, 정부 개입해야'에 대한 편차가 11%p로 찬성의견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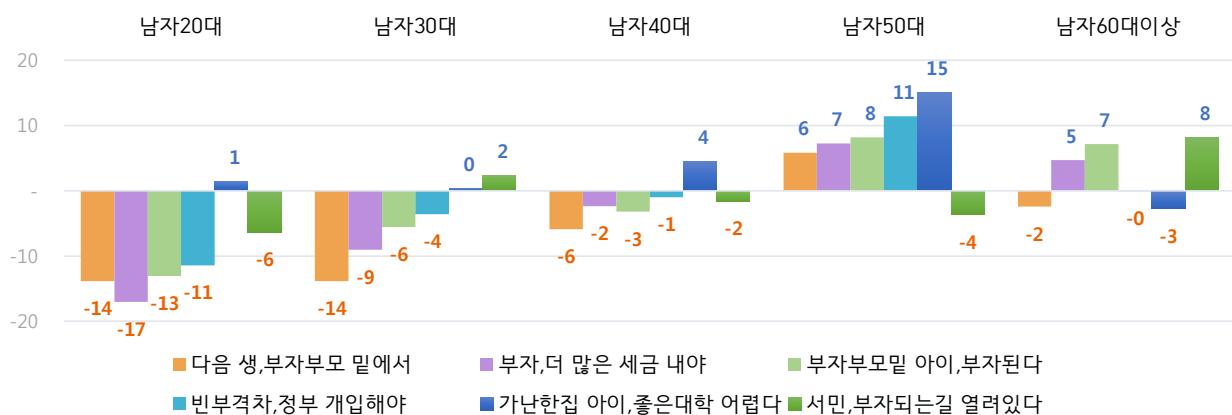
'구조적 불평등' 주장 국민전체 대비 편차 : 이념성향별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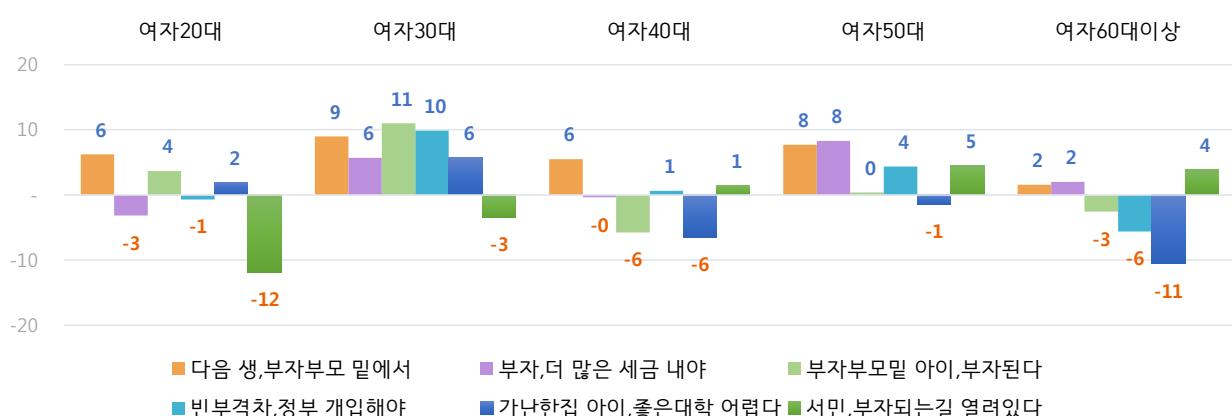
▣ 성/연령별 편차, 이념성향별 편차에 비해 편차 커

- ▶ 성/연령별로 국민전체 대비 편차를 살펴보면 남자 20대와 남자 30대의 경우 거의 모든 면에서 국민전체 의견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동의도를 나타냄
- ▶ 이에 비해 남자 50대와 여자 30대는 거의 모든 면에서 국민전체 의견보다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함

'구조적 불평등' 주장 국민전체 대비 편차 : 남자/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p)



'구조적 불평등' 주장 국민전체 대비 편차 : 여자/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0.09.06조사,단위:%p)



Kstat Point

- ☒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앞서 '공정' 개념에 있어 비교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공정이 아닌, 기회균등의 '공정' 개념을 선호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됨
- ☒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주관적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고, 성/연령별 차이는 다소 큰 편임
 - : 이는 지금의 우리 사회 주관적 이념성향이 가치관에 입각한 차이라기보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반대에 따른 태도로서 진보/보수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임
- ☒ 남자 2030세대의 경우 구조적 불평등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의 노력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이는 보수적 가치로서, 20대 남성의 보수화에 이어 30대 남성의 보수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줌
- ☒ 남자 50대와 여자 30대는 구조적 불평등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 사회구조 개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20년 9월 4일(금) ~ 9월 6일(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

표본 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 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효 표본

총 1,053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02\%$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케이스탯은 조사·통계·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월 2회 “**Kstat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Kstat Report**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Kstat Report**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 **Kstat Report**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Kstat Report**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 **Kstat Report**는 매월 2,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Kstat Report 13호(2020.09.24.)는

“민주주의와 개인 자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